

초등 국악교육을 위한 경기민요 시김새 연구

박 주 만*

시김새는 국악 선율의 유연한 흐름과 화려함, 멋스러움 등을 위하여 음악에 부여되는 표현 기법이다. 특히 민요에 나타나는 시김새는 그 지방의 음악적 특징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요수업에 있어 지역에 특징적인 시김새 지도는 민요를 이해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 교과서 경기민요 제재곡을 중심으로 음계에 따른 시김새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국악교육을 위한 주요 시김새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경기민요 시김새 지도를 위한 내용체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초등 국악교육을 위한 경기민요의 주요 시김새 지도 유형으로 ‘굴리는 소리’, ‘뛰어 내리는 소리’, ‘뛰어 올리는 소리’, ‘오르내리는 소리’, ‘흐르는 소리’, ‘채는 소리’, ‘잘게 떠는 소리’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학습 내용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악교육에서의 경기민요 시김새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경기민요, 시김새, 창부터령조, 민요수업, 초등 국악교육

차 례

- I. 서 론
- II. 연구의 기초
 - 1. 시김새의 개념
 - 2.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고찰
- III. 경기민요 제재곡의 시김새 표현
 - 1. 경기민요의 음악적 특징
 - 2. 경기민요 제재곡의 시김새 분석
 - 3. 경기민요 제재곡의 시김새 유형
- IV. 경기민요 지도를 위한 학습 내용체계
- V. 결 론

* 경기도교육연구원 연수과건교사(jjoomani@hanmail.net)

I. 서론

민요(民謠)는 우리 민족의 노래이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노래가 있다는 것만큼 음악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민요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모두가 함께 어울려 부르고 즐겨왔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 모두의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라 할 수 있다(권덕원·황병훈·송정희·박주만, 2009). 일찍이 헝가리의 음악교육학자 코다이(Zoltán Kodály)는 음악적 모국어의 개념을 갖고 헝가리의 민속음악을 자기 나라 음악교육의 모태로 삼았다. 특히 그는 자기 나라의 음악어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민요를 음악교육의 중심적인 악곡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민요를 통한 음악적 모국어 지도가 음악교육에 있어 얼마나 중요하고 기초적인 학습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학교 음악교육에서 국악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약 30%정도 비중의 국악곡이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국악곡의 양적 성장에 가장 많이 제시된 악곡 장르는 단연코 ‘민요’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요수업을 할 때 지도되어야 할 국악 요소는 무엇이 있겠는가 - 활동에 따라 중요시 되는 개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민요 지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학습 요소로는 장단, 음계, 시김새, 메기고 받는 방식, 음높이, 놀이와의 관계, 일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의 음악 개념과 요소들이 수업에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모든 민요학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특징적인 개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시김새’일 것이다.

시김새란 전통음악에서 있어 선율선이나 절주의 자연스러운 연결이나 유연한 흐름을 위하여 또는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위하여 어느 음악에 부여되는 표현 기능을 뜻하는 용어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1991). 또한 전통음악에 있어 시김새는 선율을 보다 다양하게 장식함으로써 음악적 표현을 한층 더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나타내주며, 단조로운 선율에 개성을 얹어 독특한 특징을 이루게 하는 미적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민요에 나타나는 시김새는 각 지방의 음악적 특징과 색깔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이 구사하는 언어 사용의 실태를 살펴보면 말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억양과 사투리 등을 통해 말하는 사람이 서울·경기도 사람인지, 아니면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인지, 그도 아니면 강원도 혹은 제주도 사람인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각 지방의 언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으로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문화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지역마다 다르듯 각각 지역의 말로 불리는 전통 민요에는 그 지방 사람들의 말투와 억양, 사투리를 비롯한 지역의 음악적 표현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음악적으로 볼 때 민요가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래의 선율이 갖고 있는 음조적이 다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창부타령’, ‘널리리야’, ‘천안삼거리’, ‘태평가’ 등 경기도 지방의 민요가 5음을 중심으로 한 음계로 구성되고 가늘게 떨고 부드럽게 노래하는 평조 성격의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진도아리랑’, ‘농부가’, ‘성주풀이’, ‘강강술래’ 등의 남도지방에서 불리는 민요는 3~4개의 중심적인 구성음을 바탕으로 굽게 떨고 꺾는 계면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요를 통한 시김새 연구는 민요의 표현 기법과 한국음악의 미적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악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시김새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시김새 연구들로는 시김새를 총체적으로 다룬 논문(이보형, 1999; 서한범, 2007 등), 악기 연주 주법상에 나타난 시김새 분석 연구(송권준, 1989; 이상규, 1999; 정재국, 2002 등), 시조·가곡·판소리·민요 등 국악 성악곡에 나타난 시김새 분석 연구(박수영, 1996; 조순자, 1996; 이지남, 2000; 양광호, 2001; 공재숙, 2008; 남의천, 2011; 유선미, 2011, 임미선, 2011 등) 등이 있으나 국악교육적 활용을 위한 시김새 연구(윤명원, 1996; 황병훈, 1997 등)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대표적인 경기민요에 나타난

음악적 표현을 분석하여 경기민요 지도를 위한 시김새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초등 국악교육에서의 경기민요 시김새 학습 내용체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경기민요 시김새 분석을 위해 사용된 악곡은 교과서에 수록된 경기민요 악보와 경기민요 전문가 창(명창 이춘희 음반, 2008)을 채보한 악보를 비교, 분석하여 시김새 표현을 고찰하였다.

Ⅱ. 연구의 기초

1. 시김새의 개념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 민요 음계와 함께 시김새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에 개정된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부터이다(교육인적자원부, 1997). 이전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에서는 시김새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음악 교과서나 지도서 상에 미약하게나마 시김새의 의미와 지도내용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초·중등학교 음악 교과서 상의 시김새 용어를 살펴보면 그에 따른 개념이 서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국악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악곡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생략된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시김새의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음악교육적 활용을 위한 시김새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옛 음악문헌에서 ‘시김새’라는 말을 찾기는 어렵다. 이는 ‘시김새’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이어서 이를 속어(俗語)라 하여 거론하는 것을 기피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전통사회에서 널리 쓰던 상용어가 아닌 드물게 쓰는 특수용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박헌봉의 『창악대강(唱樂大綱)』에 의하면 “바디와 시금새가 좋다”라는 말을 예시하고 이를 “성량의 체계와 발성기교가 대단히 좋다는 말”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시된 말을 적절하게 해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를 “성량체계와 발성기교가 좋다”라는 말로 해석한 것으로 봐서 ‘시김새’라는 말의 본디 개념을 특이한 형태구조로 된 목과 이를 구사하는 기교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보형, 1999). 그러나 현대에 들어 국악에서 사용되는 시김새라는 용어는 형태구조로 된 목과 이를 구사하는 기교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 뿐만 아니라 장식음을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럼, 시김새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시김새의 어휘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김새의 어휘적 의미를 살펴보면, 앞서 문헌에서 시김새를 처음 사용한 『창악대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김새’는 ‘시금새’로 사용되었다. 단어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시금새는 ‘시금’과 ‘새’의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시금’이라는 말의 어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산조의 명인인 김윤덕이 말한 ‘시김새’라는 용어는 ‘목을 이리 저리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 하여, ‘시기다’에서 ‘시김’이 나온 말이라 하였다(이보형, 1999). 둘째, 천이두는 ‘시김새’의 ‘시김’은 음식이 잘 발효되어 좋은 맛을 내는 것을 ‘곰삭다’하는 데서 볼 수 있는 ‘삭다’에서 나온 것으로 ‘삭임’이 ‘식임’이 된 것으로 ‘식임새’라 하였다(천이두, 1984; 이보형, 1999). 셋째, 서한범은 국악 선율에 특징을 표현하는 ‘장식음’이라 말에서 ‘장’이라는 말을 빼고 ‘식음’이라는 말에 ‘새’라는 말이 붙은 것이라 하였다(서한범, 1998). 이와 같은 시김새 어휘와 관련된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시김새의 정확한 어원은 찾을 수는 없었으나 시김새가 국악에서의 소리와 관련된 ‘멋’을 창출하는 장식음과 같은 표현 기법을 나타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음악에서의 시김새 기능을 통해 시김새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악학자 이해구는 그의 저서와 논문에서 장식음(시김새)을 사용하는데 있어 괄호를 넣어 시김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잔가락’, ‘간음(間音)’이란 말도 사용하였다(이해구, 1957). 또, 김기수에 의하면 국악에서의 시김새를 장식음을 포함하는 개념의 범주 안에 ‘앞 치는 소리(앞 꾸밈음)’, ‘뒤넘는 소리(뒤 꾸밈음)’, ‘겹꾸밈음표’의 셋을 예로 들며 ‘식음새

(시김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곧 시김새를 장식음으로 인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의 연구를 통해 시김새는 장식음과 잔가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장사훈은 시김새 용어를 ‘농현법’의 의미를 강조하여 사용하였다(장사훈, 1985). 그는 논저를 통해 ‘시김새’라는 말은 노래(가곡)나 관악기의 경우에는 장식법의 의미로 사용하고, 거문고·가야금 등 현악기의 경우에는 ‘농현법에 의미한다’라는 말을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그가 제시한 시김새는 앞서 살펴본 시김새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농현의 개념까지 강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송방송은 시김새를 설명함에 있어 ‘장식음’, ‘농현’, ‘잔가락’ 등의 개념과 달리 연주 상의 표현 기법 또는 연주 기법이라 하였다(송방송, 1997). 그는 전통음악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국악 선율에서 음을 흔들고 흘러내리는 여러 종류의 연주 기법(시김새)에 의해서 장식된다고 말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김새는 크게 선율의 꾸밈음을 나타내는 ‘장식음’과 전성, 퇴성, 추성 등을 포함한 ‘농현’ 그리고 ‘특수 연주 주법’의 세 가지 개념(서한범, 1995)이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김새의 의미를 정의하면 좁은 의미에서의 시김새는 선율을 이루고 있는 골격음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장식음이나 잔가락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의 시김새는 선율이나 절주의 자연스러운 연결이나 유연한 흐름을 위하여 또는 가락의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위해 부여되는 표현 기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고찰

1)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민요와 시김새 관련 내용 분석

본 절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민요와 시김새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크게 ‘활동’, ‘이해’, ‘생활

화’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중심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활동 영역에서는 표현하기, 노래하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에 관련된 다양한 음악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해 영역에서는 음악적 개념, 악기와 악곡의 특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활화 영역에서는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음악 행사에 참여하기,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개인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민요와 시김새와 관련된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요와 시김새 지도와 관련된 활동 영역 중 표현하기와 노래하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표현하기에서는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외워서 표현하기, 함께 표현하기, 음악을 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가 해당되며, 노래하기에서는 민요 부르기,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부르기, 듣고 부르기, 3음과 5음 가락 보고 부르기, 메기고 받는 방식으로 부르기, 가사의 말 붙임새 바꾸어 부르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1>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활동 영역 표현하기, 노래하기의 관련 내용

학년 내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표현 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외워서 표현하기	외워서 표현하기	외워서 표현하기	외워서 표현하기
	함께 표현하기	함께 표현하기	-	-
	음악을 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음악을 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음악을 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음악을 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노래 하기	전래동요 부르기	전래동요, 민요 부르기	전래동요, 민요 부르기	전래동요, 민요 부르기
	자연스런 발성으로 부르기	자연스런 발성으로 부르기	-	-
	듣고 부르기	듣고 부르기	듣고 부르기	듣고 부르기
	3음 가락 보고 부르기	5음 가락 보고 부르기	7음 가락 보고 부르기	7음 가락 보고 부르기
	메기고 받는 방식으로 부르기	가사의 말붙임새 바꾸어 부르기	-	-

둘째, 연주하기 내용에서는 민요장단 치기, 가락악기 연주하기(단소 시김새 표현하기) 등의 내용이 음악 만들기 내용에서는 민요 변형장단 만들기 등의 활동이 가능한 간단한 리듬 짓기와 즉흥 표현하기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활동 영역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관련 내용

학년 내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연주하기	리듬 악기, 가락 악기로 연주하기	리듬 악기, 가락 악기로 연주하기	리듬 악기, 가락 악기로 연주하기	리듬 악기, 가락 악기로 연주하기
	간단한 리듬 짓기	간단한 리듬 짓기	간단한 가락 짓기	간단한 가락 짓기
음악 만들기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친숙한 악곡의 일부를 변형하여 즉흥 표현하기	친숙한 악곡의 일부를 변형하여 즉흥 표현하기

셋째, 감상하기 내용에서는 민요 감상을 통한 시김새 표현 파악하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며, 이에 관한 내용으로 악곡의 특징적인 요소를 파악하며 감상하기 등의 내용이 있다.

<표 3>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활동 영역 감상하기 관련 내용

학년 내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감상하기	악곡의 느낌 말하기	악곡의 전체적인 특징 파악하며 감상하기	악곡의 특징적인 요소를 파악하며 감상하기	악곡의 특징적인 요소를 파악하며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한편, 이해와 관련된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시김새의 용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4학년에서는 시김새의 특징이 5~6학년에서는 시김새의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이해 영역에서의 민요, 시김새 관련 내용

학년 내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장단	장단(자진모리), 장단의 세	장단(세마치), 장단의 세	장단(굿거리), 장단 의 세, 장단 끝과 장단 세의 특징	장단(중중모리), 장단의 한배
말붙임새	-	단순한 가락	말붙임새	-
가락	-	같은 가락과 다른 가락, 비슷한 가락	-	-
	-	-	조(메나리조, 창부 타령조)	조(육자배기조, 수 심가조)
	시김새의 특징	시김새의 특징	시김새의 효과	시김새의 효과
형식	메기고 받는 방식	-	-	한배에 따른 형식
빠르기	악곡의 빠르고 느림	빠르기의 점진적 변화	빠르기말	-
셈여림	소리의 크고 작음	소리 크기의 점진 적 변화	셈여림 기호	-
악보	-	-	오선악보, 정간보	-
악곡 종류	쓰임에 따른 악곡의 종류(놀이요, 노동요, 춤곡, 행진곡 등)	쓰임에 따른 악곡의 종류(지역 전승 음악, 계절 음악)	쓰임에 따른 악곡의 종류(축제 음악, 풍 류 음악, 종교 음악)	극음악(판소리, 창극, 가부키, 경극, 오페라, 뮤지컬 등)

2)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지역별 민요 현황

본 절에서는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민요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별 구분은 경기민요(서울, 경기도, 충청도 일부), 서도민요(평안도, 황해도 지역), 남도민요(전라도, 충청도 일부), 동부민요(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지역) 그리고 제주민요의 다섯 권역으로 하였다. 또한 현황 분석에 사용한 교과서로는 초등학교 3~4학년은 2007 개정 국정 교과서로, 5학년은 2007 개정 검정 3종(태성, 금성, 천재교육), 6학년은 2007 개정 검정 5종(태성, 금성, 천재교육, 미래엔컬처그룹, 태림)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분석된 학년군별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수록 민요 제재곡의 현황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2007 개정 음악 교과서에 실린 지역별 민요 현황

지역 학년	경기민요	남도민요	동부민요	서도민요	제주민요
초등학교 3~4	월월이, 아리랑, 도라지타령, 천 안삼거리, 군밤 타령	남생아놀아라, 덕석물자, 개고 리 개골청, 강 강술래	-	-	-
초등학교 5~6	풍년가, 널리리 야, 태평가	등당애타령, 예 농데농, 장장쥬 세기, 꼬리따기, 진도아리랑, 동 당기타령, 강강 술래, 산아지타 령, 청어엮자, 해남평타령, 거 문도벚노래,	도움소, 왜지나 칭칭나네, 가래 질소리, 메밀노 래, 떡노래	금다래꿍, 씨름, 풍구타령, 봉죽 타령	너영나영, 서우 젯소리

위에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지역별 민요 현황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민요는 남도민요, 경기민요, 동부민요, 서도민요, 제주민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비교적 학습하기 쉬운 경기민요와 남도민요를 중심으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제시된 교과서 현황을 바탕으로 민요학습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경기민요 수업에서의 시김새 표현 유형과 내용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Ⅲ. 경기민요 제재곡의 시김새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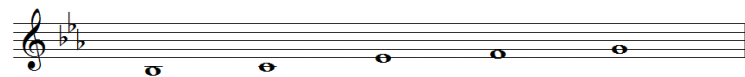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교과서 악보와 본 연구자가 채보한 전문가 창을 비교 분석하여 경기민요의 특징적인 시김새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활용된 경기민요는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상 악곡으로는 ‘아리랑’, ‘도라지타령’, ‘널리리야’, ‘한강수타령’을 선정하였다.

1. 경기민요의 음악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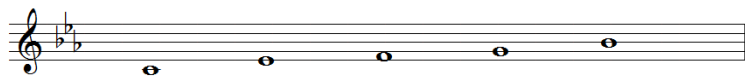
경기민요 수업에 있어 음계와 장단을 비롯한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는 일은 경기민요와 관련된 모든 음악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습 과정이다. 특히 경기민요만이 갖고 있는 주요 시김새 표현을 다양한 음악활동 통해 이해하는 것은 민요수업에 가장 기초적인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경기민요 제재곡의 시김새 분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인 경기민요의 개관 및 음악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민요는 서울·경기도 지방의 민요들을 말하며, 노래의 느낌은 대체로 밝고 경쾌하다. ‘창부타령’이나 ‘노랫가락’처럼 솔·라·도·레·미의 5음계를 사용하는 민요들이 있고, ‘한강수타령’이나 ‘베를가’처럼 라·도·레·미·솔의 5음계를 사용하는 민요들도 있다. 이 가운데 창부타령에서와 같이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로 구성된 창법적인 특징을 ‘창부타령조’라 하는데, 이는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특성이다(이성천 외, 2001).¹⁾

[악보 1] 경기민요의 음계



<도라지타령, 늘리리야, 아리랑, 노랫가락, 풍년가 등>



<한강수타령, 경복궁타령, 베를가 등>

1) 2007,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경기민요의 음계를 ‘창부타령조’라 칭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기민요의 음계적 특징을 국악계에서는 ‘창부타령조’ 외에 ‘창부타령토리’, ‘경토리’, ‘경기민요조’ 등의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기민요에 주로 쓰이는 장단은 세마치장단과 굿거리장단, 타령장단(자진타령장단) 등이 많이 사용된다.

[악보 2] 경기민요에 많이 사용되는 장단

[세마치장단]	⊙		⊙		○		
[굿거리장단]	⊙	i	○	!	○	i	○
[타령장단]	⊙		i		○	i	•

2. 경기민요 제재곡의 시김새 분석

일반적으로 경기민요 소리에 사용되는 시김새의 유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²⁾ 그러나 전문 소리꾼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김새를 학교 교육현장에서 지도하고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뒤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민요에 많이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시김새 표현을 중심으로 교과서 제재곡을 분석하여 국악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1) 아리랑

이 제재는 초등학교 3학년 국정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아리랑’은 경기도 지방에서 1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경기아리랑(본조아리랑, 신아리랑)’이다. 본래의 전통적인 아리랑에는 ‘정선아리랑’, ‘강원

2) 경기 12잡가와 경기민요에 사용되는 시김새의 종류는 40개의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경기소리의 시김새는 크게 창법적인 시김새와 장식적인 시김새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창법적인 소리(목)에는 ‘굵게 떠는 소리’, ‘꺾어 내리는 소리’, ‘오르내리는 소리’, ‘눌러 내는 소리’ 등이 있으며, 장식적인 소리(목)에는 ‘채는 소리’, ‘지르는 소리’, ‘치는 소리’, ‘쪼이는 소리’, ‘호르는 소리’ 등이 있다(오현주, 2002; 이춘목, 2004; 공채숙, 2008; 공윤주, 2010).

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이 있는데, 가장 처음 불린 아리랑은 강원도 지방의 ‘정선아리랑’으로 약 600여 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지난 2012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 민요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으며, 그 교육적 가치 또한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럼, 경기민요의 가장 대표적인 악곡인 ‘경기아리랑’에 나타난 시김새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은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에 제시된 ‘아리랑’ 악보이며, 이는 초보자들이 쉽게 민요를 배울 수 있도록 시김새를 거의 표시하지 않은 교육용 악보이다. 또한 악보에 표시된 도형은 전문가 창에서 확인된 시김새가 나타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악보 3] 경기민요 ‘아리랑’ 교과서 악보

세마치장단

아 - 리 랑 - 아 - 리 랑 - 아 라 - 리 - 요 - - -

아 - 리 랑 - 고 - 개 - 토 - 념 - 어 간 다 -

나 - 를 버 리 고 가 시 는 념 - - -

실 - 리 도 - 뭇 - 가 - 서 - 탈 - 병 난 다 -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민요 ‘아리랑’은 다양한 유형의 시김새가 표현되고 있다. 위에 표시된 시김새 표현을 살려 채보한 악보를 제시하면 [악보 4]와 같다.

[악보 4] 경기민요 ‘아리랑’ 시김새 악보

세마치장단 노래 이춘희
채보 박주만

아 - 리 랑 - - 아 - 리 랑 - - 아 라 - - 리 - 요 - -
아 - 리 랑 - - 꼬 - 개 - 토 - 널 - 어 - 간 - 다 - -
나 - - 를 - - 버 - - 리 - - 꼬 - 가 - 시 - 는 님 - 은 - -
실 - - 리 도 - - 못 - 가 - 서 - 말 - 병 - 난 - 다 - -

[악보 3]의 교과서 악보와 [악보 4]의 전문가 창 악보를 통해 확인한 경기민요 ‘아리랑’ 지도를 위한 시김새의 유형과 표현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와 ‘○’가 표시된 부분은 ‘굴리는 소리’ 시김새이다. 이 소리는 본음에 한 음 위 혹은 한 음 아래의 음을 부드럽게 굴려서 표현하는 시김새이다. 특히 ‘아리랑’에서의 ‘■’는 본음을 내고 한 음 아래의 음을 냈다가 다시 본음을 표현하는 시김새이고, ‘○’은 본음을 내고 한 음 위에 있는 음을 냈다가 다시 본음을 표현하는 시김새이다. 둘째, ‘⬡’가 표시된 부분은 ‘잘게 떠는 소리’ 시김새이다. 경기민요에서의 떠는 소리는 비교적 가늘게 떠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재에서는 한 음정을 길게 노래할 때 주로 나타나며, 부드럽고 잘게 떨어져 가락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가 표시된 부분은 ‘끌어 내리는 소리’ 시김새이다. 이 시김새는 소리의 끝부분을 끌어

내리는 소리로 미끌어 내리듯 부드럽게 감아서 표현하는 시김새이다. 넷째, ‘’가 표시된 부분은 ‘꺾어서 내리는 소리’ 시김새이다. 이 소리는 본음에서 하행되는 음을 빠르게 꺾어서 끌어 내리듯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시김새는 일반적으로 장단의 첫 소리 앞부분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경기민요 ‘아리랑’에 나오는 중심적인 시김새는 ‘굴리는 소리’, ‘잘게 떠는 소리’, ‘끌어 내리는 소리’, ‘꺾어서 내리는 소리’이며, 특징적인 시김새 표현은 ‘굴리는 소리(아래로 굴리는 소리, 위로 굴리는 소리)’이다.

2) 도라지타령

이 제제는 초등학교 4학년 국정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이다. 조선 후기에 생긴 신민요(新民謠)로 세마치장단으로 된 민요이다. 창부타령조의 솔·라·도·레·미의 5음계로 구성되어 있고, 장단의 리듬이 매우 경쾌하고 부드러워 서정적인 느낌을 준다. 교과서 악보에 제시된 노래 부르는 방식은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되어 있으나, 전문가 창에서는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로 구분된 ‘메기고 받는 방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 메기는 소리 부분은 1번째 장단부터 16번째 장단(도돌이표 포함)이고, 받는 부분은 17번째 장단부터 끝 장단까지 메기고 받으며 노래를 부른다.

그럼, 경기민요 ‘도라지타령’에 나타난 시김새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는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에 제시된 ‘도라지타령’의 악보이며, 도형으로 표시한 곳이 경기민요 전문가가 부른 창에 나타난 시김새 표현 부분이다.

[악보 5] 경기민요 ‘도라지타령’ 교과서 악보

세마치장단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대바구니 철철철다 넘는다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에야라난다 지화자 좋다

얼씨구 좋구나 내사랑아

위에 제시된 [악보 5]의 ‘도라지타령’ 시김새가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면, 시김새가 표현된 곳이 대체로 장단의 앞 부분과 뒷 부분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도라지타령’에서는 1, 5, 9, 13, 21, 25, 26번째 장단 첫 음에 특징적인 시김새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인 시김새를 살린 전문가 노래의 채보 악보를 통해 ‘도라지타령’의 주요 시김새 표현을 알아보면 [악보 6]과 같다. 참고로 채보한 전문가 창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사실과 조금 다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따라서 연구를 위한 채보는 전문가 부른 노래 사실 그대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악보 6] 경기민요 ‘도라지타령’ 시김새 악보

세마치장단

노래 이춘희
채보 박주만

도 - 라 지 도 - 라 지 - 도 라 - - 지 - - -
한 - 두 - 루 리 만 - - 캐 어 - - - 도 - - -

심 - - - 심 산 - 천 - 예 - 도 - 라 - - - 지 - - -
대 바 구 니 - 반 - 실 - 만 - 되 - 누 - - - 나 - - -

에 헤 요 - 에 헤 요 - 에 헤 - - - 야 - - -

어 히 어 라 - 난 - 다 - 지 화 자 - - - 좋 - - - 다

저 기 저 산 밑 에 도 라 지 - 가 - 한 - - 들 - - 한 - - 들 - - -

[악보 5]의 교과서 악보와 [악보 6]의 전문가 창 악보를 통해 확인한 경기민요 ‘도라지타령’ 지도를 위한 시김새의 유형과 표현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 표시된 부분은 ‘꺾어 올리는 소리’ 시김새이다. 이 소리는 아래 음에서 위 음을 빠르게 꺾어 올려서 표현하는 시김새로 ‘도라지타령’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특징적인 시김새이다. 이러한 꺾어 올리는 소리는 다른 경기민요 악곡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다. 둘째, ‘’와 ‘’가 표시된 부분은 ‘굴리는 소리’ 시김새이다. ‘’의 시김새는 본음을 내고 한 음 아래의 음을 냈다가 다시 본음을 표현하는 아래로 굴리는 시김새이고, ‘’의 시김새는 본음을 내고 한 음 위에 있는 음을 냈다가 다시 본

음을 표현하는 위로 굴리는 시김새이다. 셋째, ‘△’가 표시된 부분은 ‘끌어 내리는 소리’ 시김새이다. 이 제재에서는 뒷소리를 미끌어 내리듯 끌어 내리며 표현한다. 넷째, ‘○’가 표시된 부분은 ‘잘게 떠는 소리’ 시김새이다. 이 표현은 길지 않게 떠는 음을 강조하기 보다는 흥청거리는 느낌을 살려 가늘고 짧게 음을 흔들어 떨어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경기민요 ‘도라지타령’에 나오는 시김새는 ‘꺾어 올리는 소리’, ‘굴리는 소리’, ‘끌어 내리는 소리’, ‘잘게 떠는 소리’이며, 특징적인 시김새는 ‘꺾어 올리는 소리’와 ‘굴리는 소리’이다.

3) 널리리야

이 제재는 초등학교 5학년 김정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이다. 조선 후기에 생긴 민요로 굿거리장단의 가락이 매우 흥겨운 노래이다. 경기민요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창부타령’을 변형된 노래로 소리의 사설은 임을 그리는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는 민족의 비애와 분노를 담아 불리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반복되는 사설의 ‘널리리야’는 피리의 음색에서 따온 구음(口音)이다.

그럼, 경기민요 ‘널리리야’에 나타난 시김새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7]은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에 제시된 ‘널리리야’의 악보이며, 도형으로 표시된 곳이 경기민요 전문가가 부른 창에서 나타난 시김새 표현 부분이다.

[악보 7] 경기민요 ‘널리리야’ 교과서 악보

굿거리장단

널 리 리 야 널 리 리 야 - - 니 나 노-난-실-로 내가돌아간 다

널 널 리 리-널 리-리 야 청 사 초 풍 불 밤 허 라 - -

잇 었 던-남-군-이 다시돌아온 다 널 널 리 리-널 리-리 야

위에 제시된 [악보 7]의 ‘널리리야’ 시김새가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높게 질러 노래를 부르다가 점점 선율이 하행하면서 시김새가 많이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구체적인 시김새를 살린 전문가 노래의 채보 악보 [악보 8]를 통해 ‘널리리야’의 주요 시김새 표현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8] 경기민요 ‘널리리야’ 시김새 악보

널-리 리 야 널 리 리 야 - - 니 나 노-난 실-로 내가돌아간 다 -

널 -- 널 - -- 널 리-리 야 청-사 초 풍 불 밤 허 라 - -

잇 었 던-그 념-이 다시돌아온 다 -- 널 -- 널 - -- 널 리-리 야

[악보 7]의 교과서 악보와 [악보 8]의 전문가 창 악보를 통해 확인한 경기민요 ‘널리리야’ 지도를 위한 시김새의 유형과 표현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 표시된 부분은 ‘꺾어 내리는 소리’ 시김새이다. 이 제재곡의 경우 높게 질러 내는 소리에서는 두 음 위에 있는 음을 짧게 꺾어 표현하고, 낮은 음으로 소리 내는 곳에서는 한 음 위에 있는 음을 가볍게 꺾어 표현한다. 둘째, ‘’가 표시된 부분은 ‘잘게 떠는 소리’ 시김새이다. 주로 길게 끄는 음에 가늘게 소리를 떨어서 표현하다. 셋째, ‘’가 표시된 부분은 ‘굴리는 소리’ 시김새이다. 이 제재곡에서의 ‘’가 표시된 굴리는 소리는 본음을 소리 내고 한 음 위에 있는 음을 냈다가 다시 본음으로 내려서 굴려주는 표현이다. 넷째, ‘’가 표시된 부분은 ‘오르내리는 소리’이다. 이 시김새는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상, 하행으로 오르내려지는 소리의 표현이다. ‘널리리야’에서는 한 음을 올라갔다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가 표시된 부분은 ‘호르는 소리’ 시김새이다. 이 소리는 위에서 아래로 호르듯 내려오는 표현이다. 주로 높은 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굿리리장단으로 된 경기민요 악곡에 많이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경기민요 ‘널리리야’에 나오는 시김새는 ‘꺾어 내리는 소리’, ‘잘게 떠는 소리’, ‘굴리는 소리’, ‘오르내리는 소리’, ‘호르는 소리’이며, 특징적인 시김새는 ‘꺾어 내리는 소리’와 ‘오르내리는 소리’이다.

4) 한강수타령

이 제재는 중학교 1학년 검정 교과서에 수록된 곡이나 초등학교 시김새 지도 악곡으로도 가능한 곡이다. 사설의 내용은 한강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 ‘한강수 타령’이라고 부르며, 여덟 개의 비교적 짧은 굿거리장단으로 이루어진 민요이다. 음계는 라·도·레·미·솔의 5음으로 되었고, 가락이 대체로 한 옥타브 내에서 화려하고 경쾌하게 진행되며, 종지는 주음으로 하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본래는 대여섯 사람이 둘러서서 서

로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입창(立唱)에 속하는 노래로서 후렴구의 가락은 일정하게 부르지만, 혼자서 부르는 독창 가락 부분은 노래 부르는 소리꾼의 개성을 살려 가락과 리듬 변화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럼, 경기민요 ‘한강수타령’에 나타난 시김새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9]는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에 제시된 ‘한강수타령’의 악보이며, 도형으로 표시한 곳이 경기민요 전문가가 부른 창에서 나타난 시김새 표현 부분이다.

[악보 9]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교과서 악보

굿거리장단
(메기는 소리)

한 - 강 수 - - - 라 길 고 - 맑 은 - 물 - - - 에 -
 멀 - 리 뵈 - - - 는 관 악 산 용 장 도하 - - 고 -

수 상 선 타 고 - 서 - 에 루 화 뱃 놀 이가 잔 - 다 -
 돛 단 배 두 서 - 뉘 - 에 루 화 한 가 뭍기 도 - 하 다

(받는 소리)

아 하 아 하 에 해 야 하 에 해 - 요 - 어 허 - 야 -

얼 싹 마 등 게 디 어 라 내 사 - 랑 - - 아

위에 제시된 [악보 9]의 ‘한강수타령’ 시김새가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면, 앞 부분 네 장단에 기교적인 시김새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메기는 소리 부분이라 노래하는 소리꾼의 창의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적인 시김새의 특징으로는 굿거리장단의 흥청거림을 표현하기 위해 장단의 끝부분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시김새가 많이 출현되고 있다. 또한 장단의 세(勢)가 주어지는 셋째 장단

‘수상선’과 일곱 째 장단 ‘얼쌘마’ 부분의 2소박으로 쪼개지는 리듬과 말 붙임새가 매우 특징적이다.

그럼, 구체적인 시김새를 살린 전문가 노래의 채보 악보 [악보 10]을 통해 ‘한강수타령’의 주요 시김새 표현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0]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시김새 악보

곳거리장단 노래 이춘희
채보 박주단

(메기는 소리)

한 - 강 수 - - - - 락 - - 길 고 맑 은 - - 물 - 에 - - - -

수 상 선 타 고 - - - 서 - - 에 - 루 화 땃 늘 이 - 가 - 잔 다 - - - -

(받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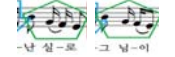
아 하 아 하 - - 에 헤 요 - 에 헤 - - - 요 - 어 히 - - 야 - - - -

요 뽕 마 동 계 디 여 - 라 내 - - 사 - - 랑 - - 아

[악보 9]의 교과서 악보와 [악보 10]의 전문가 창 악보를 통해 확인한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지도를 위한 시김새의 유형과 표현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 표시된 부분은 ‘굴리는 소리’ 시김새이다. ‘한강수 타령’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시김새 표현으로 한 박자 안에 여러 음들을 굴려서 표현하는 창법적인 시김새이다. 둘째, ‘↓’가 표시된 부분은 ‘꺾어 내리는 소리’ 시김새이다. 이 제재곡에서는 한 음 위와 두 음 위에 있는 음을 끌어 내리며 표현한다. 셋째, ‘↑’가 표시된 부분은 ‘꺾어 올리는 소리’ 시김

<표 6> 경기민요 지도를 위한 주요 시김새 유형

구분 제재	시김새 유형		시김새 설명	예
	종류	창법적 시김새	장식적 시김새	
아 리 랑	굴리는 소리	○		한 음 위 혹은 한 음 아래 음을 부드럽게 굴려서 내는 소리 
	잘게 떠는 소리	○		가락의 흐름에 맞게 가늘게 음을 흔들어 떠는 소리 
	끌어 내리는 소리	○		소리를 미끄러지듯 끌어 내리는 소리 
	꺾어 내리는 소리	○		본래 음보다 소리를 높이 낸 다음 급격히 끌어 내리는 소리 
도 라 지 타령	꺾어 올리는 소리	○		아래 음에서 위 음을 빠르게 꺾어 올리는 소리 
	굴리는 소리	○		한 음 위 혹은 한 음 아래 음을 부드럽게 굴려서 내는 소리 
	끌어 내리는 소리	○		소리를 미끄러지듯 끌어 내리는 소리 
	잘게 떠는 소리	○		가락의 흐름에 맞게 가늘고 짧게 음을 흔들어 떠는 소리 
넌 리 야	꺾어 내리는 소리	○		본래 음보다 소리를 높이 낸 다음 급격히 끌어 내리는 소리 
	잘게 떠는 소리	○		가락의 흐름에 맞게 가늘고 길게 음을 흔들어 떠는 소리 
	굴리는 소리	○		한 음 위 혹은 한 음 아래 음을 부드럽게 굴려서 내는 소리 
	오르내리는 소리	○		제 음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상, 하행으로 오르내려진 소리 
한 강 수 타령	호르는 소리		○	위에서 아래로 호르듯 내려오는 소리 
	굴리는 소리	○		한 음 위 혹은 한 음 아래 음을 부드럽게 굴려서 내는 소리 
	꺾어 올리는 소리	○		아래 음에서 위 음을 빠르게 꺾어 올리는 소리 
	꺾어 내리는 소리	○		본래 음보다 소리를 높이 낸 다음 급격히 끌어 내리는 소리 
	호르는 소리		○	위에서 아래로 호르듯 내려오는 소리 
	채는 소리		○	음을 빠르게 채듯이 집어 올리는 소리 

위에 제시된 <표 6>은 교과서의 제시된 대표적인 경기민요의 시김새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화한 것이다. 그러나 <표 6>에 제시된 모든 유형의 경기민요의 시김새를 학교 현장에 지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국악교육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하고 특징적인 시김새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분석을 통해 제시된 시김새의 유형 중 악곡의 특징적인 시김새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국악수업에서 어떠한 학습 내용과 단계로 지도할 것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V. 경기민요 지도를 위한 학습 내용체계

학교 교육의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습내용의 체계는 크게 2가지 문제 즉, 범위(scope)와 계열(sequence)과 관련이 있다. 학습내용의 범위는 지도해야 할 주제, 단원(제재), 항목 등의 요소를 말하며, 계열은 주제, 단원, 항목을 어떤 순서(학교, 학년급별 순서 혹은 1학기와 2학기의 순서 등)로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한다. 최종적으로 제시될 초등학교 경기민요 시김새 지도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경기민요 시김새 내용체계 설정 영역은 크게 이해와 활동으로 구분하였고, 활동은 다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경기민요 시김새 내용체계의 세부내용은 시김새를 통한 직접적인 음악활동의 구체적인 학습내용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습내용의 계열 설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발단단계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구분하고, 저학년은 초등 1~2학년, 중학년은 3~4학년이며, 고학년은 5~6학년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경기민요 시김새 지도를 위한 내용체계의 배열은 국악의 본질적인 요소를 먼저 듣고 느끼고 이해한 후 음악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의 지도 과정을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다섯째, 발달 단계별로 강조점을 설정할 때의 방향은 시김새의 기능적인 표현 습득 보다는 국악에서의 시김새 표현이 주는 특징과 효과에 중점을 두어 제시하였으며, 그 표시 방식으로는 ‘□: 보통, ■: 강조,

■ ■ : 매우 강조'로 하였다. 여섯째, 제시한 시김새 교육내용 즉, 경기민요 시김새 지도를 위한 내용 체계표는 교육내용의 표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급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경기민요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초등학교 경기민요 시김새 학습 내용체계

영역	구분	세부내용	학년군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해	기본학습	· 굴리는 소리	■	■ ■	■
		· 꺾어 올리는 소리	□	■ ■	■
		· 꺾어 내리는 소리	□	■ ■	■
	심화학습	· 오르내리는 소리	-	■	■ ■
		· 흐르는 소리	-	■	■ ■
		· 채는 소리	-	□	■
		· 잘게 떠는 소리	-	□	■
가 창	기본학습	· 듣고 따라 부르기	■ ■	■ ■	■ ■
		· 악보(그림악보, 정간보, 오선보 등) 보고 부르기	□	■	■ ■
		· ‘굴리는 소리’ 살려 경기민요 부르기	■	■ ■	■ ■
		· ‘꺾어 올리는 소리’ 살려 경기민요 부르기	□	■ ■	■
		· ‘꺾어 내리는 소리’ 살려 경기민요 부르기	□	■ ■	■
	심화학습	· ‘오르내리는 소리’ 살려 경기민요 부르기	-	■	■ ■
		· ‘흐르는 소리’ 살려 경기민요 부르기	-	■	■ ■
		· ‘채는 소리’ 살려 경기민요 부르기	-	■	■ ■
		· ‘잘게 떠는 소리’ 살려 경기민요 부르기	-	■	■ ■
활 동	기본학습	· 가락약기(단소, 소금 등)로 ‘굴리는 소리’ 연주하기	-	-	■ ■
		· 가락약기(단소, 소금 등)로 ‘꺾어 올리는 소리’ 연주하기	-	-	■
		· 가락약기(단소, 소금 등)로 ‘꺾어 내리는 소리’ 연주하기	-	-	■
	심화학습	· 가락약기(단소, 소금 등)로 ‘오르내리는 소리’ 연주하기	-	-	■
		· 가락약기(단소, 소금 등)로 ‘흐르는 소리’ 연주하기	-	-	□
		· 가락약기(단소, 소금 등)로 ‘채는 소리’ 연주하기	-	-	□
		· 가락약기(단소, 소금 등)로 ‘잘게 소리’ 연주하기	-	-	□
감 상	기본학습	· 시김새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구별하며 듣기	□	■	■ ■
		· 시김새의 특징 이해하며 듣기	-	■	■ ■
	심화학습	· 간단한 시김새의 종류 구분하며 듣기	□	■	■ ■
		· 여러 가지의 시김새의 종류 구분하며 듣기	-	□	■

영역	구분	세부내용	학년군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창작		· 시김새의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기	☐	■ ■	■
		· 시김새의 움직임을 손, 그림 등으로 표현내기	☐	■ ■	■
	창작	· 창부타령조를 활용한 간단한 가락 짓기	-	☐	■
		· 1~2가지의 시김새를 넣어 창부타령조 가락 짓기	-	☐	■
		· 3~4가지의 시김새를 넣어 창부타령조 가락 짓기	-	☐	■

□ 보통 ■ 강조 ■ ■ 매우강조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경기민요 제재곡을 중심으로 음계에 따른 시김새를 분석하여 시김새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초등 국악교육에서의 시김새 지도를 위한 학습 내용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민요 제재곡 분석을 통해 시김새 지도를 위한 7가지 유형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시김새의 유형으로는 ‘굴리는 소리’, ‘꺾어 올리는 소리’, ‘꺾어 내리는 소리’, ‘오르내리는 소리’, ‘흐르는 소리’, ‘채는 소리’, ‘잘게 떠는 소리’이며, 이를 창법적 시김새와 장식적 시김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각 제재곡에 따른 특징적인 시김새 표현 기법을 살펴보았다. ‘아리랑’에서는 위와 아래로 ‘굴리는 소리’, ‘도라지 타령’에서는 ‘꺾어 올리는 소리’와 ‘굴리는 소리’, ‘널리리야’에서는 ‘꺾어 내리는 소리’와 ‘오르내리는 소리’가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한강수 타령’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시김새가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흐르는 소리’와 ‘채는 소리’가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다.

셋째, 초등학교 경기민요 지도를 위한 학습 내용체계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체계의 영역은 이해와 활동으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이해 영역 시김새에서는 앞서 살펴본 제재곡에 따른 경기민요 시김새 7가지 유

형과 표현 방법, 그에 따른 예시를 제시하였다. 또한 활동 영역에서는 가창, 기악, 감상, 창작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음악적 특성에 따라 학년별로 나누어 지도 단계를 표시하여 배열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른 후속연구와 제언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기민요 시김새 지도를 위한 내용체계는 향후 보다 정교화하고 지속적인 검증을 거쳐 일반화하고 표준화된 모델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민요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지도되는 또 다른 국악 제재곡(서도민요, 남도민요, 시조 등)에 따른 시김새 연구와 학습내용 체계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효율적인 시김새 지도방법도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윤주(2010). 경기12잡가 소춘향가 시김새 연구. 모드니예술, 3. 201-236.
- 공재숙(2008). 유산가 가창법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등학교 음악 3, 4. 서울: 교학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덕원, 황병훈, 송정희, 박주만(2009). 국악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 김장순(2002). 한국 민요 발성법의 음악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남의천(2011). 시김새를 통한 ‘한국적’ 한국가곡의 연주방법 모색. 음악교육공학, 13. 189-214.
- 박수영(1995). 김월하 여창 가곡의 시김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한범(1996). 국악통론. 태림출판사.
- _____(1998). 시김새론. 한국 민속학, 30. 73-106.
- _____(2007). 북한 민요의 시김새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1. 55-78
- 송권준(1989). 영산회상의 관악기 시김새에 관한 비교 연구. 부산대 예술논문집, 5. 211-240.

- 송방송(1997). 한국음악통사. 서울: 일조각.
- 오현주(2002). 수심가의 창법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유선미(2011). 정정렬제 최승희<춘향가> "광한루 풍경" 대목의 음군(音群)과 사설 및 시김새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31. 325-360.
- 윤명원(1996). 우리나라 현행 초·중등 음악교과서 상의 시김새. 우석대논문집 2집. 237-282.
- 이보형(1999). 한국음악의 시김새 연구 방법 시론: 민속음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음악논단, 13. 1-18.
- 이상규(1999). 정악의 시김새: 관악기 시김새를 중심으로. 음악논단, 13. 19-36.
- 이지남(2000). 국악 가창 용어 중 '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춘목(2004). 서도소리 연구: 창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이혜구(1957). 한국음악연구. 국민음악연구회.
- _____(1975). 한국음악서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양광호(2001). 경상북도 지역의 토속민요에 나타난 시김새 연구. 국악과교육, 19. 60-146.
- 임미선(2011).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경기, 동부 민요적 음악현상. 정신문화연구, 34(2). 247-274.
- 장기범 외 4인(2010). 초등학교 음악 6. 서울: 미래엔.
- 장사훈(1966). 국악논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1991). 국악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정재국(2002). 피리의 시김새를 통해 본 수제천. 한국음악사학보, 29. 671-684.
- 조순자(1996). 시김새를 통한 여창가곡의 분석. 부산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 국악제 세미나자료. 65-77.
- 천이두(1993). 한의 구조 분석. 서울: 문학과 지성사.
- 황병훈(1997). 육자배기조 민요의 시김새 지도 방법 연구. 교육논총 13집. 277-30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13.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Gyeonggi Folk Song Sigimsae for Elementary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Park, Joo-Man

Sigimsae is the expressive technique provided to music in order to create the flexible flow of melodie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also its splendor and sophistication. In particular, sigimsae expressed in folk songs plays crucial roles in highlighting musical features of a certain region. Therefore, the teaching of sigimsae distinctive in a certain region regarding teaching folk songs is the most nuclear part to understand folk songs. Thereup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sigimsae according to the scale centering around the Gyeonggi folk songs contained in music textbooks in order to examine the major types of sigimsae for elementary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nd also investigate the contents system to teach Gyeonggi folk song sigimsae based on that. As the research result, the article selected as the chief types of teaching sigimsae of Gyeonggi folk songs for elementary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gulrineun sori (the expression made by rolling the sound that is one tone upper or lower softly)', 'ggeoeko naerineun sori (the expression created by making the sound that is higher than the original tone and then drawing it down rapidly)', 'ggeoeko olineun sori (the expression made by pulling a lower to upper tone promptly)', 'oreunaerineun sori (the

expression made by either raising or lowering the tone in a fixed interval)', 'heureuneun sori (the expression made by lowering the tone as if it flows)', 'chaeneun sori (the expression made by raising the tone fast as if it is snatched)', and 'jalge ddeoneun sori (the expression made by subtle vibration)' and then suggested the system of learning contents according to i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the concrete guideline to teach sigimsae of Gyeonggi folk songs regarding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key words : Gyeonggi folk songs, sigimsae, changbutaryeongjo, folk song class, elementary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투고일: 2013년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1일(4월 23일), 게재 확정일: 5월 9일